발 열

조 성 숙 / 학교건강관리소 소아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호교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사례별로 연재하고 있다. 집필은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 팀이 전공별로 맡아주고 있다. (편집자 주)

발열은 기침과 더불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이다. 소아과 외래를 찾는 환자의 주소(主訴) 중에 기침 다음의 빈도를 차지하며 소아과 입원환자의 주소(主訴)로서는 으뜸을 차지할 정도이다.

소아과는 주로 영유아와 학동기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양호실은 학동기 연령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겠으나 방문의 주된 원인은 발열때문이다. 열자체는 열성경기가 있던 아이가 아니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열이 높다고 곧 병이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은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일단 열이 나기 시작하면 열이 있다고 느끼기도 전에 머리나 팔다리가 아프고 춥고 떨리는 증세가 선행되어 양호실에서 체온계로 재보고 발열증세를 알 수 있을 때도 있다. 열이 높게 올랐거나 떨어질때는 더위를 느껴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나 본인은 실제 측정된 체온에 비해 덜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반면에 열이 올라갈 때는 체온계상의 수치가 높지 않아도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체온측정은 겨드랑이나 입보다는 직장체온이 정확하며 학동에서는 직장에 7㎝가량 삽입하여 적어도 3~5분 정도를 재며 이경우 입이나 겨드랑이보다 체온이 0.5~1.0℃ 정도 높다. 보통 37.2℃ 이상일 때는 열이 있다고 간주해야 하며 열사병등 의식이 없을 때는 직장체온을 재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원인으로는 감기, 인후염, 급성중이염, 폐렴, 장염, 요도염, 결핵 등의 감염, 백혈병, 임파선같은 종양, 가와사끼병, 류마티열, 관절염등 교원성 질환, 면역결핍증등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히 소아가 갑자기 열이 날때는 급성호흡기감염(감기라고 흔히 일컫는 상기도감염, 기관지염, 폐염같은 하부기도감염), 중

이염, 요도염등에 의한 것이다. 우선 문진할 때 열성경련의 과거력이 있는지 묻고 기침, 콧물같은 감기증상이 있는지, 또는 목이나 귀가 아프지는 않은지를 알아본다. 또한 요로 감염증세인 소변을 평상시 보다 자주보는지 혹은 아프지는 않은지 물어본다. 검사할 때는 목을 들여다 봐서 발적이나 하얀점막이 있는지 보고 귀를 들여다 보고 가슴을 청진하고 늑골척추 각 사이에 압통이 있는지 알아 본다. 감기는 개인의 감수성, 저항력, 영양상태, 호흡기알레르기등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년에 통상 3～6회 정도는 앓게 되며 대개는 Virus감염이고 그중에서도 Rhinovirus가 제일 흔한 감염균이다. Rhinovirus는 100종류 이상이 있는데 면역성이 없어 코감기에서 열감기로 또는 기침감기로 순회할수 있다. 인후염인 경우 학동기에는 연쇄상구균에 의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류마티열 신장염등의 합병증을 염두에 두어 적절한 치료로서 합병증을 막아야한다. 일주일이상 증상이 계속될 때는 2차세균감염으로 인한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염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흉부 X선사진을 찍어 본다. 열이 2주 이상 계속되는데도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을 때는 불명열이라 하며 이때는 전문의를 찾아 봐야한다. 불명열의 원인으로는 장티프스, 결핵, 심내막염, 요로감염, 신체내농양 등 감염성질환, 류마티열, 관절염등 교원병, 백혈병, 뇌종양등 악성종양, 뇌성마비나 두개내 출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DPT나 홍역등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도, 열이나고 Atropine이나 steroid를 사용했을 경우 수술이나 체내의 출혈이 흡수되면서 열이 난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열하는 수도 있다. 열사병은 발열의 내과적인 응급상태로서 열 조절기능이 점차 마비 되며 두통, 오심, 현기증, 빈맥 증세와 더불어 땀이나지 않고 의식상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된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열을 떨어뜨려야만 한다. 열에 대한 일반적 치료는 옷을 가볍게 입히고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다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사지를 문지르고 Aspirin 60mg/kg/day이나 Acetaminophen(Tylenol) 25mg/kg/day를 3～4회 분복한다. 열사병일 경우는 기도를 확보하고 찬물에 잠수시키거나 또는 담요에 찬물을 묻혀 덮어준다. 계속해서 식염수 관장과 산소를 공급해 주고 수액요법 및 배뇨를 측정, 가능한한 빨리 체온을 내려 직장체온이 39℃ 이하가 되도록 한다. ✝